



국무회의 개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서울-세종 영상)를 주재하고 있다.

전북 SNS 관광기자단 우수활동 기자 시상식

# SNS 통해 전북을 세계에 알렸다

강혜미 씨 금상 · 가타히라유미꼬 씨 은상 · 노광호 씨 동상 수상

전북도는 20일 한 해 동안 SNS를 통해 도내의 우수한 관광자원 해외 홍보를 위해 앞장선 우수활동 기자를 선발해 시상식을 개최했다.

전북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이번 시상식에는 전북SNS관광기자단, 전북관광협회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활동기자단 3명(금상 1명, 은상 1명, 동상 1명)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날 시상식을 위해 지난 15일 SNS 관광기자단 중 개별답사 3회 이상, 포스팅수 50건 이상 활동자를 대상으로, 객관적심사와 심사위원회의사로 구분하여 심사했다.

심사 결과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강혜미씨(33세, 여)가 금상을, 가타히라유미꼬씨(54세, 여)가 은상을, 노광호씨(29세, 남)가 동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북도는 관광자원의 해외홍보를 위해 2013년부터 다양한 언어권별로 SNS 관광기자단을 운영하고 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몽골어, 필리핀어, 프랑스어 등 다양한 언어권으로 구성된 55명의 전북SNS관광기자단은 지난 3월 발대식을 가진 후 전북의 구석구석을 SNS를 통해 해외에 알리으로써 해외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고 있다.

전북SNS관광기자단은 단체답사는 물론 개별적으로 도내 주요 관광자원을

답사해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세계적 SNS는 물론 국가별 인기 높은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북관광 해외홍보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 결과 올해에만 385회 답사를 진행했고, 총 8,063건을 포스팅했다.

해가 거듭될수록 양적인 성장은 물론 질적으로도 뛰어난 콘텐츠로 전북 관광을 알리는 포스팅이 많아 우수활동기자단을 선정하는 심사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심사에 참가한 관계자는 말했다.

이러한 SNS관광기자단의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전북도의 다양한 관광마케팅전략으로 전년 동기대비 전북 방문 외국인 관광객수가 1만1,000여명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도는 해외홍보마케팅의 통로를 다변화하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홍보마케팅을 위해 기자단의 신뢰감을 바탕으로 한 구전효과를 통해 전북관광 이미지를 제고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전북SNS관광기자단을 앞으로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전북도 유근주 관광총괄과장은 "인지도가 낮은 우리 전북도를 전 세계에 알리고, 서울과 제주, 부산으로 치우친 해외 여행객들의 발걸음을 전북으로 옮기게 하는 것은 SNS관광기자단 한사람, 한사람의 작은 입소문이 모여야 가능하다"면서 SNS기자단을 격려했다. /인재용 기자

## 전북지역 사회안전망, 공고하게 구축

### 각종 도민안전 재난 정책 성과 가시화 지역안전지수 전 분야 3등급 이상 차지

전북도가 '도민안전'에 중점을 두고 각종 재난안전 정책을 추진한 결과 그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지난해 7월 도민안전실을 신설해 그간 여러 부서로 나뉘어져 있던 재난안전 업무를 통합하고, 재난안전 기능을 강화하여 전담부서를 운영한 지 2년차가 됐다.

전담부서인 도민안전실은 안전정책, 사회재난, 자연재난, 생활안전 분야별로 재난안전 업무를 중점 추진해 왔다.

특히 올해에는 도정시책 첫 번째를

'안전 전북' 구현에 두고,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선제적 예방을 통한 사회재난 제로화, 자연재난 안전지대 조성 및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을 중점 추진한 결과, 상당부분 도민의 기대치에 부응하고 분야별로 여러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지난 11월 국민안전처 발표 결과 올해 전북도의 지역안전지수가 개선됐고, 안전사고 사망자 수가 감소되고 있는 등 지역이 점점 더 안전해지고 있다.

특히 전북도의 지역안전지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4개 분야 등급이 상

승했고 전 분야 3등급(중급)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전북도가 추진 중인 각종 재난안전 정책들이 중앙부처 각종 평가와 시범사업에서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국가안전대진단 및 한국훈련, 안전혁신경보자연재난 등 재난안전 분야에 걸쳐 우수기관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아울러 재난안전 민관협업 시스템을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신고, 풍수해 보험 확대 등 도민 참여가 활성화 되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9월 발생한 경주지진을 계기로, 당시 대응의 미비점을 보완해 '지진방재 종합계획'을 새롭게 만들었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내년에 '지진환경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현용 도민안전실장은 "도민안전실 신설 2년차인 2016년은 중앙평가에서 안전분야 전반에 걸쳐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지역안전지수가 크게 향상되는 등 성과는 있었다"면서, "내년에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안전전북으로 가는 길을 확고히 다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 도내 학교 '우레탄 트랙' 77% 철거

81개교 완전 철거 · 철거 중... 15개교 1월 중 완료 계획

전북도내 초중고교의 우레탄 트랙이 77%의 철거율을 보이고 있다.

20일 도교육청은 납 등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도내 학교의 우레탄 트랙은 총 96개로 이중 77%인 81개 학교가 완전 철거됐거나 철거 중에 있다고 밝혔다. 나머지 15개 학교는 1월 중 철거 또는 하자보수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우레탄 트랙 철거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81개 학교 중 총 41개가 완전 철거상태이며 우레탄층이 철거된 학교는 37개, 미완료된 학교가 4개다. 철거가 완료된 학교는 전주의 경

우 용와초, 완산초, 전주중 등 총 11개 학교, 군산은 2개교, 4개교, 남원 5개교다.

도교육청은 나머지 15개 학교에 대해선 1월 중 별도의 예산을 배정해 이 중 6개 학교의 우레탄 트랙을 철거할 계획이다. 또 9개 학교에 대해선 업체를 통한 하자보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우레탄 트랙 폐기물 처리와 관련, 공사가 완료된 41개 학교는 폐기물처리까지 완료된 상태이며 40개 학교는 12월이나 1월 중 폐기물 처리를 완료할 계획이다. /정해은 기자

## 도, 맞춤형 보육 '최우수 기관' 선정

익산시, 기초지자체 '우수'

전북도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맞춤형 보육제도 정착을 위한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차지했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광역부 1위를 차지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고, 익산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맞춤형 보육은 자녀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맞벌이 가정 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여 종일반 보육을 활성화하고, 부모와의 애착관계 형성이

중요한 영아기 아이들의 어린이집 이용을 적절하게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학부모의 수요와 근로연계를 반영한 제도이다.

도는 어린이집운영관리(학부모 수요조사 후 운영계획수립, 현장점검 등)와 맞춤형 홍보 및 지자체 관심도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철웅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전국 1위 평가는 맞춤형 보육정책 시행시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우수사례와 다양한 노력 등이 인정받은 것 같다"면서 "학부모들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보육사업이 일·가정 양립과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 전북보건환경연구원

### 식·약품분야 측정분석 숙련도 전 항목 양호 평가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으로 실시한 식품 및 약품분야 측정분석 숙련도시험에서 식품 12항목, 화장품 1항목 등 전 항목 양호 평가를 받았다.

식·약품분야 숙련도시험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험·검사기관의 검사능력 향상 및 검사결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 등급은 양호와 미흡의 2단계로 구분 평가된다.

연구원이 검사능력 향상 및 대외 신뢰도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숙련도 평가에서 지난 5년 동안 계속해 우수한 성적을 받고 있는 것은 내부 숙련도 시험 등 분석능력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고, 새로운 첨단장비를 도입한 결과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우수한 분석능력을 인정받은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이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분석역량 강화를 통한 건강한 먹거리 및 식·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 전북도교육청 6급 이하 토론회

전북도교육청이 6급 이하 공무원들의 토론회를 개최한다.

도교육청은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6급 이하 지방공무원 토론회를 21일 오전 10시 2층 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100여명이 참여한다.

이날 공무원들은 △학교시설 등 학생안전 지원방안 △효과적 교육활동 지원방안 △직장내 갈등 해결방안 등 4가지 주제를 가지고 12개 모둠으로 나눠 토론을 갖게 된다. /정해은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